

‘신세계 vs 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경쟁... ‘더현대’ 먼저 첫 삽 더현대 10월 착공... 신세계, 내년 하반기 목표 맹추격 예상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간 광주 복합쇼핑몰 경쟁에서 ‘더현대 광주’가 먼저 첫 삽을 뜨게 되면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가 두 유통 대기업 간 선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현대’가 먼저 스타트를 예격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선두를 놓친 ‘신세계’의 맹추격전이 예상된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오는 10월 첫 삽을 뜬다. ‘더현대 광주’는 8월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와 착공보고회를 열고 2027년 말 완공, 2028년 상반기 영업을 목표로 하는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광주 복합쇼핑몰 경쟁은 신세계백화점 측이 현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인근 이마트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속도를 냈으나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 측이 ‘신세계’를 추월하게 됐다.

‘더현대 광주’는 대지면적 3만2364㎡(9790평), 연면적 27만2000㎡(8만2000평) 규모로 ‘더현대 서울’보다 1.45배 크다. 건물은 지상 8층 지하 6층 규모로 지어진다. 더현대 광주 건축물은 광주의 전통과 문화유산·미래의 기술을 반영해 건축계의 거장 헤르조그&드 뫼롱이 설계했다.

‘더현대 광주’는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보여 완공 후에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임동문화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투시도

사진=광주시청제공

다. 반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2002년 8월 현대백화점 보다 먼저 현 이마트 부지에 백화점 확장계획을 발표했으나 여러 난관에 부딪혀 애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광천 터미널 부지 확장을 통한 ‘더그레이트 광주’로 복합 개발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컨설팅 등에서 광주시와 이견으로 협상 제안서 제출이 늦어지고 인·허가를 위한 사전협상도 지연됐

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내 사전협상 마무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변경, 올 연말 착공 목표를 뒀으나 현재로서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신세계측은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 부지에 아파트·복합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종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터미널은 지하에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두 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착공 시기는 1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컨셉과 규모가 달라 누가 먼저 문을 열 것인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복합쇼핑몰 착공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 대 유통사의 선의의 경쟁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주시 “지역기업들 탄소중립 동참하세요”

기업 대상 ‘탄소중립 이행 국가지원사업 설명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기후에너지지원원,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오는 9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이행 국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재단이 참여해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또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알이(RE)100 대응전략’ 주제 특강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세계적 환경 규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책 변화에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등 산업부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모의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시 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시는 앞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병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탄소액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의 부대행사로 열리며, 지역 내 기업 및 업무 담당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K-Food 산업관 참가하세요

31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기본 부스 무료·독립부스 300만원

해외판로 개척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무료참가 접수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식품 관련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박람회장에 운영할 예정인 케이푸드(K-Food) 산업관과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푸드 산업관은 푸드테크와 미식, 식품 산업 관련 우수한 제품의 전시·판매·홍보를 위한 산업 교류의 장으로 치러진다. 모집 분야는 푸드테크와 케이푸드, 미식인(人), 3가지로 나뉜다. 참가 기간은 3회차로 나뉘며, 1회차는 10월 1~12일, 2회차는 10월 14~19일, 3회차는 10월 21~26일로 진행된다.

참가 기업에는 기본부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독립부스는 부스당 300만 원(부가세 별도) 참가 비용이 있으며, 전남 기업의 경우 참가비의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8월 중 선정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도 함께 모집해 식품기업의 해

외 유통 채널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도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9월 중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해 선정돼 10월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상담회에 참가하게 된다.

케이푸드 산업관, 수출상담회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expo-namdonice.com)과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박람회가 남도미식과 식품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외 미식산업 교류 장이 되도록 식품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자연이 차린 식탁 남도, 지속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신종필 기자

광주시, 생성형 AI로 행정효율·창의력 높였다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본격화하며,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창의력 향상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이는 ‘AI 중심도시’를 넘어 ‘AI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청 53개 부서 165명을 대상으로 챗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드저니(Midjourney), 감마(Gamma)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공직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원 대상자 165명 중 약 95%가 이용하고 있는 챗GPT는 보고서 초안 작

‘AI 중심도시’ 넘어 ‘AI 정부’로... 공직사회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신기술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챗GPT·퍼플렉시티 등 활용

GPTs 기반 ‘AI 대변인’ 자체 개발... 실무 활용도·만족도 모두 높아

성, 데이터 분석, 사례 수집 등 기획 및 리서치 분야에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기획서 작성 55건, 통계 분석 122건 등에 활용됐으며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는 업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근거를 요하는 정보 조사에, 미드저니는 디자인 시안 제작에, 감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구성에, 넵킨AI는 텍스트 기반의 도식화에 활용되는 등 공

직 내 생성형 AI 도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직원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지피티(ChatGPT) 기반 행정지원 서비스인 ‘AI 대변인’을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보도자료 및 정책 설명문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등 실무 전반에 활용, 공공홍보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7월 1일 기준) AI 대변인은 1000명 이상이 사

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공 사례들을 공무원 업무누리집 내 ‘디지털 실험실(D-LAB)’을 통해 전 부서에 공유하고, 인공지능 실무교육과 콘텐츠 구매 등을 연계해 디지털 업무환경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디지털 신기술 이용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생성형 AI는 행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도구”라며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시전반에 일상화된다면 행정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경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